

해외 음용수 실태 _ 미국 수돗물에 대한 깊은 신뢰

글 박재광 교수 _ 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높은 수돗물 음용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급수를 시작한 것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이다. 식수의 오염으로 1790년대에 시민의 20%가 황열병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1880년대에는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원수의 오염으로 이취미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도달하였으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2003년의 조사에서는 시민의 75%가 수돗물을 신뢰하여 그대로 마시고 있다고 한다.

또한 1993년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서는 '크립토포리디움 사고'로 인하여 40만명이 설사, 구토 등으로 고생하였으며, 그 중 노약자나 에이즈환자 약 1백명이 사망하는 20세기 말 최대의 수돗물 사고가 났었다. 시 당국은 이후 1천억원을 들여 정수장 시설 개선을 하였으며 현재는 시민들도 수돗물을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심지어 갓난아이에게도 끓이지 않은 수돗물로 분유를 타서 먹일 정도로 신뢰하고 있으며, 공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이 정수기와 샘물을 선택하는 이유

미국의 음용률 통계와 수돗물 안전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 미국에서는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 보다 수돗물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엄격한 수질기준을 선정하고 철저한 정수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이유나 장거리 여행 또는 재해 준비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 미국의 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82%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데,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한 대다수가 단순히 '수돗물의 냄새나 맛이 싫기 때문' 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제 2만불 소득에 도전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먹는 샘물을 마심으로 인해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가능성 증가, 그리고 물류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또한 동네 약수를 마심으로 인한 수인성질병 발병가능성 증가 및 교통체증, 기름낭비 등으로 인해 자칫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가 수돗물이 '식수'가 아닌 그저 세수하고 빨래하는 '생활용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갓난아이에게도 끓이지 않은 수돗물로 분유를 타서 먹일 정도로 수돗물을 신뢰하고 있으며, 공원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돗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막연한 불신, 그리고 미국인들의 수돗물에 대한 깊은 신뢰와 높은 음용률. 이 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